

보도시점 2026. 7. 28.(화) 배포 시 배포 2026. 7. 28.(화) 16:00

농식품부, 장마 이후 폭염에 대비하여 농축산물 수급 차질 없도록 총력 대응

-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 제4차 회의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8일(화) 세종에서 제4차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 회의(반장: 차관)를 개최하였다.

< 제4차 여름철 수급안정대책반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26. 7. 28.(화) 14:00~15:00, 정부세종청사 5동
- 목적 :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 점검,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 추진
- 참석자 :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농업생산자중양연합회, 도매법인, 육류유통협회, 계란산업협회, 식품산업협회,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GS 리테일) 등

이번 회의에서는 장마 이후 이어질 폭염에 대비한 농축산물 생육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경감방안’의 이행상황과 최근 가공식품 가격 동향도 함께 살펴보았다.

품목별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한 결과, 그동안 가격이 낮았던 양파·오이·애호박은 소비촉진 등으로 회복세이나, 농산물 전반적으로 생산이 증가하여 가격이 낮은 상황이다. 다만, 이번주부터 장마가 종료되고 본격 휴가철에 접어드는 만큼 가격이 낮았던 품목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축산물의 경우 가축전염병 등 영향으로 전·평년 대비 가격이 높지만,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계란은 이번 주부터 주간 평균 2천만 개 규모의 수입 신선란이 공급될 예정이고, 8월부터는 계란 생산량도 전년 수준을

상회하면서 가격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여름철 폭염으로 강한 일사와 고온이 지속될 경우 과수 햇볕데임, 가축 폐사 등 농축산물 생산 감소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생육 모니터링과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미세살수장치, 차광도포제, 송풍팬 등을 지원하는 한편, 장마 이후 병해충 발생에 대비하여 영양제·약제 할인 공급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지역이 강우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살수차, 스프링클러 등을 활용한 긴급 급수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가공식품 가격 동향을 점검한 결과, 중동전쟁 이후 원재료, 포장재, 유통비,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원가 부담이 증가하여 일부 식품업체가 평균 5~11% 수준의 가격을 인상하였다. 농식품부는 원재료 할당관세 적용 확대, 원료 구매자금 지원 등 업계 원가부담 완화 방안과 함께,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인상률·인상 품목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 분산 및 할인·판촉 행사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폭염 등 여름철 기상 여건 변화에도 농축산물의 수급 상황이 급변하지 않도록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전과정에 대한 관리와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라며, “관계기관과 생산자단체, 유통업계에서도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식품시장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성만	(044-201-2681)
		담당자	사무관	황수지	(044-201-2682)
	축산정책관실 축산유통팀	책임자	과 장	전익성	(044-201-2371)
		담당자	서기관	홍성현	(044-201-2318)